현불 논단

지도자와 공감능력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기습적 8월 폭우에 이재민 발생
국회의원 망언으로 국민들 분노
지도자의 도덕적 임무 상기해봐

부처님 재세 당시 '코삼비 분쟁'
갈등엔 부처님도 대장 코끼리도
숲 속으로 숨을 수 밖에 없었다

지도자는 험난하며 고독한 자리
공감능력이란 도덕적 책무 가져

8월 둘째 주, 우리나라에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10여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수재민이 발생했으며, 수천대의 차량이 침수됐다. 이번 폭우로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반지하 주민들의 고난이 심각했다. 이 수해 현장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원봉사를 위해 방문했다. 그런데 한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하였다.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비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강심장이 있다. 이는 실언이 아니라 망언이다. 필자는 승려로서 정치에 문외한이요, 관심조차 없다. 하지만 이런 정치인을 보면서 수재민들이나 가족 잃은 사람들에게 민망하고 미안함이 앞선다.

마침 조계종에서도 큰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일이 다가왔다. 총무원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필자는 4년 마다 치루는 선거에 조계종 종도로서 무탈하게 끝나기만을 발원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다르다. 단독 후보로 나오는 진우 스님을 모시고 교육원에서 소임을 살았던 터라 관심을 갖고 언론을 주시했다. 이 어른의 성품을 아는지라 앞으로 조계종은 큰 걱정이 없을 거라고 본다.

근자에 사회적으로나 불교계에 일련의 이슈된 사건들을 접하면서 여러 상념이 교차한다. 〈법화경〉에도 길잡이가 등장한다. 정치하는 이들은 사람들을 이끄는 길잡이인데, 그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이고, 지도자급 사람들은 어떤 도덕적인 임무를 띠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지도자급 자리는 고독하고 힘겨운 위치라고 본다. 부처님 재세시 코삼비 분쟁이 있었다. 코삼비 지역의 강사와 율사 두 비구가 사소한 계율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두 비구의 제자들까지 합류하면서 분쟁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부처님께서 직접 중재에 나섰으나 소용이 없었다. 급기야 부처님이 홀로 숲속으로 숨었는데, 그곳에서 코끼리를 만났다. 그 코끼리도 코끼리 무리 가운데 왕인데, 암코끼리와 수코끼리 등이 서로 얽혀 싸움질을 해서 숲속으로 도망쳐 온 것이다.(〈법구경〉에 출처를 둔다.)

삼계 도사인 부처님과 축생계 대왕 코끼리!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줄을 의미한다. 적어도 지도자라면 철저히 고독함을 뼈저리게 느낄 만큼 힘들고 외로워야 한다. 이런 지도자라야 도덕적 임무를 짊어진 길잡이라고 생각한다.

인도의 성자 크리슈나무르티(krishnamurti, 1895~1986)는 제자들과 함께 기차로 인도 여행을 한 적이 있었다. 기차 안에서 제자들이 '명상'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하였다. 제자들은 결론이 나지 않자, 스승에게 정답을 물었다. 크리슈나무르티가 이렇게 답했다.

"우리가 타고 가는 이 기차가 조금 전에 철로에서 염소를 치어 기차가 잠시 멎었다가 떠났다. 그런데 자네들은 명상 토론에 열중해 있느라 그런 일이 일어난 줄조차 모르고 있으니, 그것은 명상과는 거리가 멀다."

수행자의 일상 과정이자 목표가 명상인데, 중생을 저버린 명상은 깨달음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중생 없는 부처가 존재할 수 없고, 국민 없는 정치인은 건재할 수 없다. 비 피해로 고통 받는 수재민들 앞에서 사진이나 찾고 있으니, 민중을 염두에 두지 않는 정치인·지도자는 꽃향기가 전혀 없는 조화나 다름없다.

길잡이! 지도자! 민중 앞에 군림하기 위해 비단 방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만큼 험난하고 고독한 자리여야 한다. 적어도 지도자급 길잡이는 도덕적 임무를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 도덕적 임무란 민중에 대한 '공감능력과 연민심'이다. 추석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여름은 바람이다

제주의 바람은 일출봉에서 하루를 시작해 산방산에서 일몰을 배경으로 모래와 함께 한바탕 살풀이를 추고서 떠나간다. 그렇게 모래 개울이 흐른다고 하여 산방산 아랫마을을 사계리(沙溪里)라 한다.

이런 곳에 어찌 전설이 없겠는가. 옛날 어떤 사냥꾼이 한라산 백록담까지 사냥하러 가게 됐다. 마침 흰 사슴을 발견한 사냥꾼이 흥분하여 활시위를 당겼다. 그런데 흰 사슴은 옥황상제를 모시는 영물이었다. 그 눈빛과 마주친 그의 화살은 목표물을 빗나가 옥황상제의 엉덩이를 건드리고 말았다. 사냥에 눈이 먼 사냥꾼이 급한 마음에 만든 큰 사고였다. 생명을 살피는 옥황상제가 차마 인간에게 뭐라 꾸중하기도 난처해 한라산 봉우리를 뽑아서 서쪽으로 던졌다. 그것이 산방산이고, 백록담은 봉우리가 뽑혀 움푹 팬 분화구를 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먼 인도의 진주 스리랑카의 탄생 유래와 비교해보면 재미를 더한다. 수미산의 북서쪽 바람의 신 바유가 있었다. 그를 풍천(風天)이라고도 한다. 그는 사슴을 타고 흰 깃발을 들고서 인드라의 전차 마부 역을 담당한다. 그리고 바유신은 재산과 명성을 바람으로 실어 나르는 신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격정적인 기질을 타고났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 그에게 우주의 산 메루산은 바람의 힘을 보여주기에 알맞다고 생각됐다. 그런데 그 산은 신조(神鳥) 가루다가 언제나 큰 날개로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절호의 기회가 왔다. 마침 방심한 가루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때를 놓칠 리 없는 바유신은 온 힘을 다해 일순간에 폭풍을 일으켜 메루산을 향해 일장을 날렸다. 그렇게 해서 정상이 떨어져 나갔는데 지금의 스리랑카라고 한다.

두 이야기는 바람의 신화 속에서 상상의 날개를 펴기로 한다. 성스러운 산에는 신비한 이야기도 많은 법이다. 고려시대 혜일(慧日) 선사가 '산방법승(山房法僧)'이라 하고 이곳에서 정진할 때 일이다. 고단이라는 사람이 느지막이 귀동이를 얻었는데, 선사는 이 아이를 거둬 이름을 방철이라 짓고 천축국에 보내어 공부를 시켰다. 공부를 마친 방철이는 금강산에서 기도하다가 선녀로 변한 관세음보살에게서 생진주를 얻는다. 그 후 산방굴사로 돌아와 생진주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며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서기 깃든 데는 수난사도 있기 마련이다. 조선 중기 이형상 목사는 가을바람 좋은 날 제주를 21일간 돌며 〈탐라순력도〉를 남긴다. 여기 '산방배작'을 보면, 목사 일행이 산방굴사의 불상을 바다에 빠뜨려 버리고 그곳에 앉아서 술잔을 주고받는 장면이 있다. 그 후 100여 년 뒤, 추사 김정희가 8년 넘게 제주 유배를 지낸다. 이때 해남 대흥사의 초의 선사가 부인의 부고와 함께 정성으로 덖은 녹차를 들고 방문한다. 선사는 반년을 산방굴사에 머물면서 추사의 적거지까지 10리를 오가며 '밀다경'을 써 널리 전하였다고 한다. 이때 쓴 추사의 '초의정송반야심경(草衣淨誦般若心經)'과 '명선(茗禪)'은 추사체의 대표작이다.

바람이 불면 히말라야 설산의 부탄에서 날리고 있는 풍경(風經)이 보고 싶다. 그 바람이라면 산방덕이 흘리는 사랑의 눈물을 보듬어줄 수 있을 텐데. 누구는 산방산 앞 용머리 해변의 바위를 보며 베토벤의 '운명'을 바람 신이 형상화해 놓은 것 같다고 했다.

〈제주 선래왓 주지〉

社 說

10돌 사노위 앞으로 10년이 기대된다

2012년 8월, "약자의 아픔을 보듬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발원하며 출범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 간 사노위가 걸어온 길은 파격적이다. 승복을 입은 스님들이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염불을 외고 목탁을 치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로했고 시민사회단체, 이웃 종교와의 연대에도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 종교의 사회참여에 대한 방향성을 새롭게 만들어 갔다. 오체투지, 49재를 문화행사에 접목, 대중성을 확보했고 사회 문제라고 하면 "사회문제 해결은 곧 투쟁"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함께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운동의 개념으로서가 아닌 종교행위로서 사회적인 여론을 만들어 나간 것이다.

오체투지로 또 다른 사회운동 형태를 만들었다. 사노위의 오체투지는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의지를 강렬하게 피력하는 모습으로 대중 속으로 다가갔다. 이웃 종교 성직자들 역시 오체투지에 함께 나설 수 이었던 것도 바로 불교적 예법의 사회화 덕분이다.

여기에 사노위의 꾸준함은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대중들에게도 신뢰감을 주기 충분했다.

10년 간 수많은 현장에서 우리사회 곳곳의 고통 받는 사람들을 만난 사노위는 이제 미래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현장 중심 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불교의 연기적 사유와 평등사상을 현대인에게 쉽고 편하기 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소식이다. 차별과 편견으로 생성된 사회갈등이 사라지고 화합으로 평등한 그날이 올 때까지 활발발할 활동을 해나갈 사노위의 앞으로의 10년이 기대된다.

만일염불 전승에 큰 관심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매일, 매시간 같은 마음을 갖고 꾸준히 반복하다보면 이뤄진다는 말이다. 그 1만 시간을 1만일로 확장해보면 어떨까. 27년 5개월에 달하는 긴 시간을 하루하루 어떠한 목표를 위해 정진한다면 분명 그 일이 이뤄질 것이다.

국난의 위기 때마다 불교에서 1만일 정진 기도 등이 이뤄진 것도 그런 이유다. 수많은 대중들이 같은 마음으로 긴 시간 정진하다보면 그 마음이 음으로 양으로 한데 뭉쳐 국난극복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중 가장 대중적인 수행인 염불이 선호 받았고 전국적으로 염불만일회가 구성되곤 했다. 758년 고성 건봉사에서 발징 화상이 31명의 스님들과 함께 진행한 염불만일회는 그 효시로 꼽힌다. 이후로 6차에 걸쳐 염불만일회가 구성됐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8월 26일 고성 건봉사에서 7차 염불만일회가 입재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8월 14일 고성 건봉사에서는 2년차 입재가 이뤄졌다.

고성 건봉사 측은 이러한 불교 수행문화를 무형유산으로 전승하겠다는 계획이다. 발징 화상이 염불한 자리인 등공대일대까지의 참배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역화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염불만일회 기도도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 추진한다. 염불은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하다. 생활 곳곳에서 '아미타불'을 염호하는 순간이 바로 수행의 순간이다. 이러한 원력들이 모이고 모이고, 1만일이 되면 하나의 더 큰 힘이 된다.

한국불교 전통을 잇는 이러한 만일결사에 대한 관심과, 불교문화로 전승해가는데 불자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일일시호일

간질성 폐질환에 무너진
미얀마 청년의 일상

2015년 한국 찾은 민팡씨…호흡곤란…기침 잦아 병원 찾았다
폐 딱딱해지는 간질성 폐질환 진단…하루 병원비만 1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